

7 광주일보
제17511호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노조 흠피 차단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완도군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완도군이 행정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정모(49)씨가 “완도군청이 전산망을 차단해 직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할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완도군은 그러나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돼 명예훼손 문제 및 공직 내부의 갈등이 빚어졌으며 ▲근무시간 동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완도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완도군 공무원 노조(조합원 350여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불법노조로 간주, 모든 협상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홈페이지 접속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명예훼손이 되는 글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군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도=정은조기자 eunjung@kwangju.co.kr

광주·전남 피부관리실 10곳

‘수은 화장품’ 사용

수은과 중독성인 항생제 물질이 함유된 유해 화장품이 광주·전남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유해 화장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뒤 아토피 질환·여드름 치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박모(44)씨 등 제조·판매책 5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중국에서 정제불상의 원료 1천 300kg을 밀수입, 무허가 화장품 1만3천500개를 제조한 뒤 지난해 1월부터 광주·전남 피부관리실 10곳 등 전국 202개 병원·한의원·업소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화장품에 ‘바쉬티 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화장품 업체 T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해 1개에 16만원(소비자 가격, 총 21억8천50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바쉬티 크림’의 경우 중금속인 수은이 기준치의 71.5배에서 98.1배, ‘화이트 크림’은 33.5배에서 무려 2천 150배까지 검출됐다. 또 중독성 물질로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인 디펜하이드라민(항히스타민제)·설파메톡사졸(항생제) 등의 성분도 다량으로 검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덕·전문성 갖춘 검증된 인물을”

학연·지연 ‘부적절 선거’ 우려 후보자 철저한 검증 선행돼야

러릴 분위기다.

27일과 25일 각각 보성과 순천에서 열린 전남 제3선거구(순천·고흥·보성·화순·장흥) 소견발표회에는 각각 유권자의 14%가량이 참석해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공약을 청취했다.

지난 24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시 제1선거구(동구·북구) 소견 발표회에도 유권자의 30%가량이 참석하는 데 그쳤고, 26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선거구 후보자 소견 발표회에도 유권자의 17%만이 참석했다. 광주 제2선거구

는 제1선거구에 비해 사전 불법선거 운동이 난무했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접촉수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중 상당수가 이미 마음속에 지지 후보를 정해놓고 맹목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일부 교육위원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당선된 이후 ‘답례’ 차원에서 각종 인사 및 이권 등에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위원 중 상당수

가 인사·예산·회계에 개입해 선거과정 중 자신을 도와 준 사람을 챙긴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교육위원은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선화 사무국장은 “유권자들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 교육현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힘을 써 줄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전남교육연대” 최은순 정책실장은 “올바른 철학을 갖추고 정치적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시 제2선거구 소견발표회에 나선 후보자들. 이날 발표회에는 전체 유권자 2천87의 17%인 35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풍암동 모녀 살해’ 범인 자수

“여자친구 교제 문제로 말다툼 끝 격분”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수한 김모(26·광주시 북구 용봉동)씨의 신병을 서울 영등포경찰로부터 인계 받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40분께 여자친구가 사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S아파트 4층 김모(여·50)씨 집에 들어가 김씨와 김씨의 막내 딸 양모(15·중 2)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보 7월27일자 7면〉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순천 김씨의 1남 2녀 중 큰딸 양모(23·전남 M대 4년)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흉기로 양씨의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김씨는 전남 M대를 졸업 후 서울 고시원에서 속직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며, 여자친구와는 같은 과 1년 선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후 피복은 옷을 버리고 숨진 김씨의 큰 아들(21) 옷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으나,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 지구대에 자수했다.

김씨는 “한강에 투신자살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아파트에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테이프와 범행 현장에 버려져 있던 피복은 옷·흉기 등을 증거품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범행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한 뒤 28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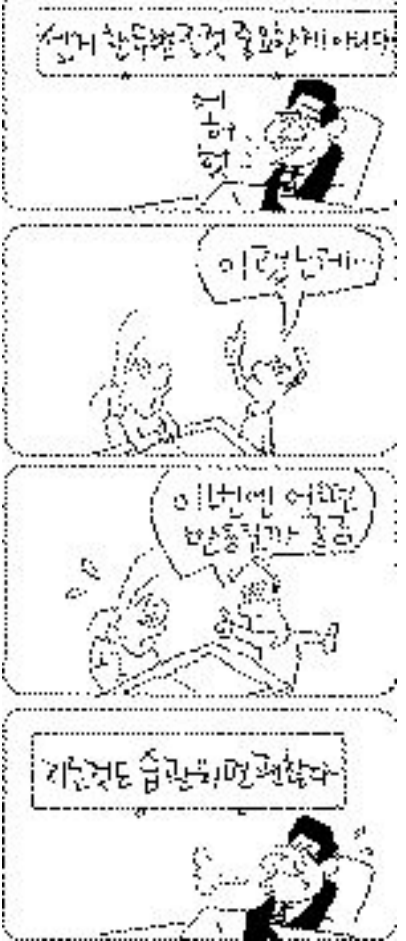
산림청 헬기 추락 기장 숨져

충남 부여군 복금리 뒷산

27일 오전 11시28분께 충남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 마을회관 뒤편 야산에서 밤나무 방제작업을 벌이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강릉관리소 소속 헬기가 추락, 기장 이재희(49)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헬기는 물 무게량 1천ℓ에 달하는 러시야제 ‘ANSAT305’ 헬기로 이날 오전 11명 중 기장 이재희 혼자 탑승했다.

추락한 헬기는 야산 기슭에 떨어져 잠목 등이 불에 탔으나 주변에 인가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연제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3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목욕탕 돌며 500여만원 털어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광주시 서구 일대 목욕탕을 돌며 8차례에 걸쳐 손님 옷장에서 5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온 박모(여·41·영암군)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민정기자 viola@

만취 30대 남의 집서 잠들다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27일 북구 각화동 박모(여·36)씨 집에 잘못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문모(32·광주시 동구 학동)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전날 밤 자신의 회사 사장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잇따라 술을 권하는 사장의 눈을 피해 27일 새벽 0시40분께 이웃인 박씨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1시간 가량 잠이 들었다는 것.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도저히 못 마시겠기에, 도망가려고 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뜻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태리가구 전문점

www.홍스제이스.kr

홍스제이스.kr

광주 장동로터리 (파라-전국무시제) 홍스제이스 가구전문점 02-226-1186~7

스포츠 아웃렛
다이애나 명품관
100459

최신 출시된 SONY의 명품들

2006 소니 핸드캡 여름보상축제

2006 소니 핸드캡 여름보상축제

소니 공주전시판매장
☎ (092)522-2000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 10021510-3000